

제 309호 · 2015년 6월 3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 KMI

##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 CONTENTS |

#### 물류정책·사업동향

1. 머스크라인, 새로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2. 필리핀 ICTSI, 멕시코 톱스판항 터미널운영사 인수
3. E-Commerce, 인도 물류부문 성장을 견인
4. TVS LSL, 인도 물류기업 DIESL社 인수

#### 물류시장동향

1. 광저우항, 항만 확장 프로젝트 투자 계약 체결
2. 러시아 우편국, 중국과의 우편배달에 철도 이용

#### 공지사항

1.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2.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 머스크라인, 새로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 머스크라인이 2020년까지 컨테이너 당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을 2007년 대비 60%까지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발표함
- 머스크라인의 지속가능성 총 책임자인 Signe Bruun Jensen씨는 당사는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하는(doing more with less)' 즉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이고 상업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힘
  - 예를 들면, 머스크라인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 페인트가 칠해진 친환경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있음
  - 머스크라인은 Triple-E 클래스 선박과 같은 연비가 좋은 선박을 건조하거나 기존의 선박을 개조함으로써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힘
- 머스크라인이 2014년 착수한 탄소협정(The Carbon Pact challenge)은 고객과의 장기 협정으로 개별 고객의 사업에 적합하게 설정한 CO<sub>2</sub> 목표치를 준수할 것을 명기한 것임
  - 협정을 통해 고객과 공동으로 투명한 운영과 보다 지속 가능한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전체 산업의 수준을 높일 것을 약속함
  - 머스크라인의 CCO(최고영업책임자, Chief Commercial Officer)인 Stephen Schueler씨는 머스크라인은 고객들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그는 공급사슬의 CO<sub>2</sub> 배출을 줄일 것을 약속함으로써 가시적인 탄소 절감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함
- 머스크라인은 이산화탄소 감축의 새로운 목표 설정과 함께 사업성장과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줄이는 노력을 더욱 경주할 예정이며, 새로운 목표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함
  - 머스크라인의 CO<sub>2</sub> 배출은 이미 2007년 대비 40%까지 절감했으며, 이것은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타사보다 약 10% 앞선 수치라고 주장함
  - 또한 머스크그룹은 2015년 1분기에 13억 달러의 근원이익(underlying profit)<sup>1)</sup>을 시현해 18%의 커다란 성장세를 달성했고, 동기간 머스크라인은 7.1억 달러의 근원이익을 시현함
- 머스크라인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임과 동시에 새로운 선박과 장비에 1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 : [www.porttechnology.org](http://www.porttechnology.org), [www.maersk.com](http://www.maersk.com), 2015.5.22.

이언경 전문연구원 (☎ 051-797-4682, [eklee@kmi.re.kr](mailto:eklee@kmi.re.kr))

1) 총 이익 중 환율변동분과 일회성 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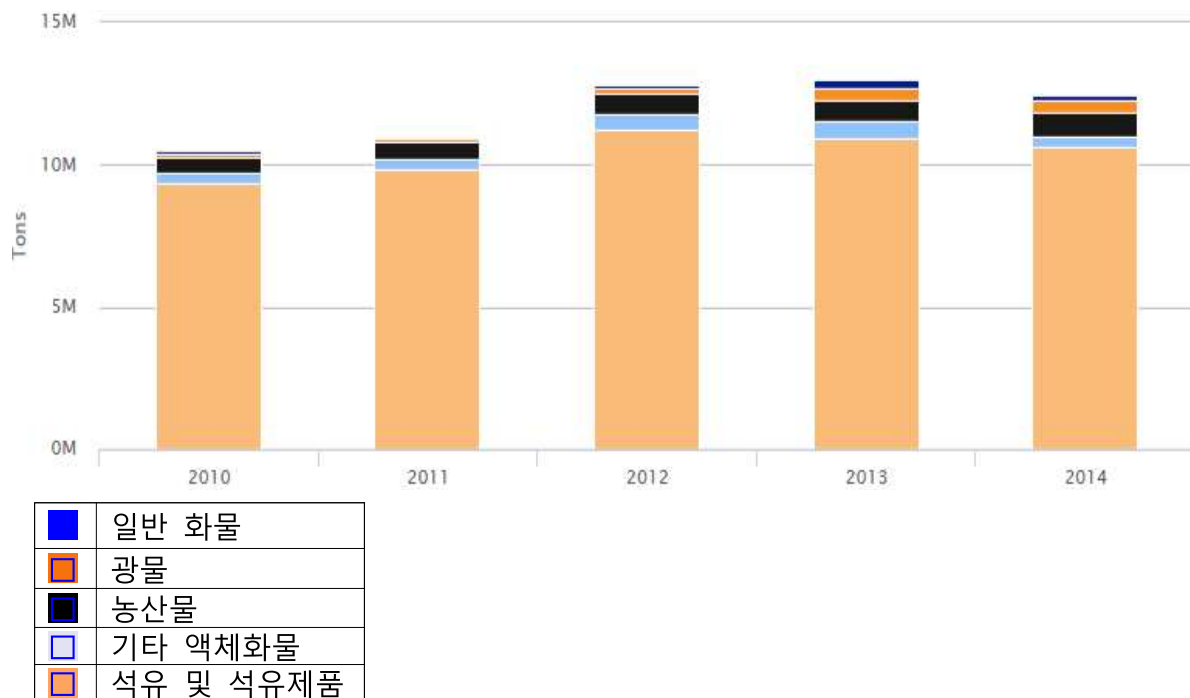
## □ 필리핀 ICTSI, 멕시코 톱스판항 터미널운영사 인수

- 필리핀 최대의 항만운영사인 ICTSI가 최근 멕시코 최대 복합물류업체 Grupo TMM으로부터 멕시코 베라쿠르즈 주에 위치한 톱스판(Tuxpan) 항 터미널 운영사 TMT(Terminal Maritima de Tuxpan)를 인수했다고 로이드 리스트가 보도함
  - 이번 인수는 ICTSI가 멕시코 Grupo TMM(99.9%)과 계열사인 인모빌리아 TMM(0.1%)이 보유한 TMT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인수가격은 미화 54.5백만 달러에 이름
  - Tuxpan 항은 멕시코 만으로 부터 내륙으로 11km 지점의 톱스판 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멕시코 시티로부터는 최단거리에 위치한 항만으로서 인근 베라크루즈 항보다 수송시간을 약 1시간 30분 단축할 수 있음
- 이번 ICTSI의 인수 배경에는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비, 멕시코 정부가 Tuxpan 항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더욱 확장하려는 계획이 자리 잡고 있음
  - 기존의 Tuxpan 항 터미널은 2014년 하반기에 일부 개장되어 현재 미국계 터미널 운영사 SSA Marine에 의해 운영 중임
    - \* SSA Marine은 2013년 4월부터 톱스판 강 남안의 85.73ha 규모의 부지에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를 시작해 2014년에 1단계 공사를 완료했으며, 이 터미널은 자동차 야드, 세관, 창고 및 CFS, 컨테이너 야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제2 터미널은 제1 터미널과 달리 육상에 자리잡게 됨
- 톱스판 항은 2014년 멕시코만 연안 항과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멕시코 시티-톱스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멕시코의 중요한 물류 허브로 떠오르고 있음
  - 2014년 톱스판 항의 화물 처리량은 12.5백만 톤으로 동기간 멕시코 전체 항만 물동량의 4.3%를 차지
  - 멕시코 교통통신부(SCT)에 따르면 톱스판 항 물동량의 80% 이상은 석유 및 석유 제품으로서 과거 톱스판 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미미한 수준이었음
  - 멕시코 시티-톱스판 간 고속도로는 전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재임기간 착수되어 2012년 11월 50km 구간공사를 완료했으며<sup>2)</sup> 2014년 총 연장 86km에 이르는 전체 공사를 마쳤음
- 이번에 TMT를 인수한 필리핀 기반 ICTSI는 필리핀의 마닐라 외에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의 마타디(Matadi)와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남미 브라질의 테콘 수아페 및 중미 지역 혼두라스의 코르테스 항 등 전세계 30개 항만에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

2) Rebecca Conan, "Mexico's Tuxpan Container Terminal to Start Operation in 1H15," BNamericas.com, April 3, 2013.

- 멕시코에서는 이번에 진출하게 되는 톱스판 항 외에 2010년 1월, 태평양 연안의 만자닐로 (Manzanillo) 항 제2터미널을 34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ICTSI측은 이번 TMT 인수를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의 확장과 다변화를 노리는 한편, 금번 투자를 통해 멕시코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등 상호 윈-윈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음

### <Tuxpan 항의 물동량 구성 >



자료 : BNamericas.com

자료 : www.gsciintell.com, 2015.5.12.

박성준 전문연구원 (☎ 051-797-4774, [sjpark@kmi.re.kr](mailto:sjpark@kmi.re.kr))

## □ E-Commerce, 인도 물류부문 성장을 견인

- 인도의 전자상거래 부문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인도 물류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됨
  - 인도에 새롭게 개편되는 세금제도(Goods & Services Tax)도 기존 세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물류산업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Singhi Advisors 은행의 물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와 특송의 증가로 물류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는데, 인도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은 연평균 35-40%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물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Patel Logistics, Gati와 같은 물류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 시설들을 갖추고, 선두 기업들과의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 예로, Patel는 아마존(Amazon)과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Patel 리테일을 설립하기도 했음
- 인도 내 전자상거래 산업은 2009년 38억 달러에서 2015년 200억 달러로 증가 했으며, 2030년에는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물류산업은 2013년 4조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세계 GDP의 10%에 가까운 금액임
  - 인도 전체 산업에서 물류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6%임에도 불구하고, 물류분야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6%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현재 냉장창고와 농산물 창고, 자유 무역 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Golden Quadrilateral, East-West, 그리고 North-South corridors와 같은 인프라 사업들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의 요인은 물류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항공물류 특성화를 담당하는 Patel Logistics의 Areff Patel 부사장은 전자상거래야말로 침체된 물류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기존 소매업의 93%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매업이 2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향후 물류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gadgets.ndtv.com, 2015.5.20.

이홍원 연구원 (☎ 051-797-4783, hongwon@kmi.re.kr)

## □ TVS LSL, 인도 물류기업 DIESL社 인수

- TVS LSL(TVS Logistics Services Ltd)이 인도 Tata 그룹 계열의 물류기업인 DIESL(Drive India Enterprise Solutions Ltd)을 인수하기로 합의했음
  - 인도 TVS 그룹 계열의 물류 기업인 TVS LSL은 TVS의 물류 부서에서 시작하여, 2004년 12월 독립 · 설립된 종합물류기업으로 특히 자동차 유통 · 물류 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TVS 그룹의 자동차 물류 및 계열사들의 물류 업무 일부를 비롯하여 창고업, 운송업 등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매출 70억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있음
  - 인도를 비롯하여, 영국, 스페인, 독일, 미국, 태국, 중국 등에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했으며,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인수와 관련된 비용 등 재정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음
- DIESL은 인도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창고, 물류네트워크 활용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TVS LSL은 이러한 DIESL의 강점을 활용하여, 인도 전역에서의 물류 분야 입지 강화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DIESL과 TVS LSL의 서비스 통합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TVS LSL의 R Dinesh 전무이사는 “이번 인수 활동을 통해 TVS LSL의 자동차 물류시장 확대를 비롯하여 자동차 물류 분야 외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언급함
  - 또한 “고객들에게 TVS & DIESL의 맞춤형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TVS LSL의 관리파트너사인 TOF사의 Padmanabh Sinha 자문담당은 “인도 정부는 인도내 물류 인프라 정비와 물류 관련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TVS LSL의 DIESL 인수 활동은 이러한 인도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인도내 전문물류업체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http://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5.27.

손보라 연구원 (☎ 051-797-4781, [bora62@kmi.re.kr](mailto:bora62@kmi.re.kr))

## 물류시장동향

## □ 광저우항, 항만 확장 프로젝트 투자 계약 체결

- 중국 광저우 항만 관리 회사는 심해해협을 Koumen, Dahao, Linding까지 확장하는 프로젝트 투자 계약을 체결함
  - 본 프로젝트의 투자비용은 4억8천4백만 달러로 심해해협을 66.6km 길이로 확장할 계획임
  - 광저우항에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되며 17m의 수심과 385m의 폭으로 확대될 예정임
  - 두 척의 10만DWT급 컨테이너선의 동시 작업이 가능하며, 두 척의 15만DWT급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작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됨
- 광저우항은 중국 남부지역 중요 항만 중의 하나로, 4,600개의 선석과 1,000톤급 규모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2,359개의 묘박지가 있음
  - 이를 통해 상하역 보관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 화물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광저우항은 중국에서 가장 큰 석탄 처리 항만이며, 2013년에 1,300만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함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5.05.27.

김주혜 연구원 (☎051-797-4779, joohye915@kmi.re.kr)

## □ 러시아 우편국, 중국과의 우편배달에 철도 이용

- 그동안 러시아는 중국으로 우편 배달시 철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 또는 항공을 이용함
  - 새로운 철도 서비스는 작년 중국 우편국과 러시아 우편국이 전략적 협력협정을 체결한 결과물임
  - 러시아의 가장 긴 철도인 TSR은 극동러시아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연결하며 중국에서 수거된 우편물들은 TSR을 통해 러시아 각 지역에 배달됨
  - 철도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는 과도한 물류운영단계를 축소시켜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임
  - 철도를 이용한 첫 번째 우편물은 중국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에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로 배달되었으며 러시아 우편국은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에도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전함
  - 러시아 우편국은 또한, 러시아의 Novosibirsk, Yekaterinburg와 Kazan 지역이 새로운 우편 물류 거점이 되어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철도를 이용한 우편 서비스를 중국의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5.3.24.

김민정 연구원 (☎ 051-797-4777, mkkim421@kmi.re.kr)

**<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기업

## □ 대상사업

-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센터·창고·항만·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
-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지사·사무소 설립 사업
- 상기 관련 M&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 지원내용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
  - 현지 경제·무역·인프라·물동량 현황, 투자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
-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동조사(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
  -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
  - ※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
-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

## □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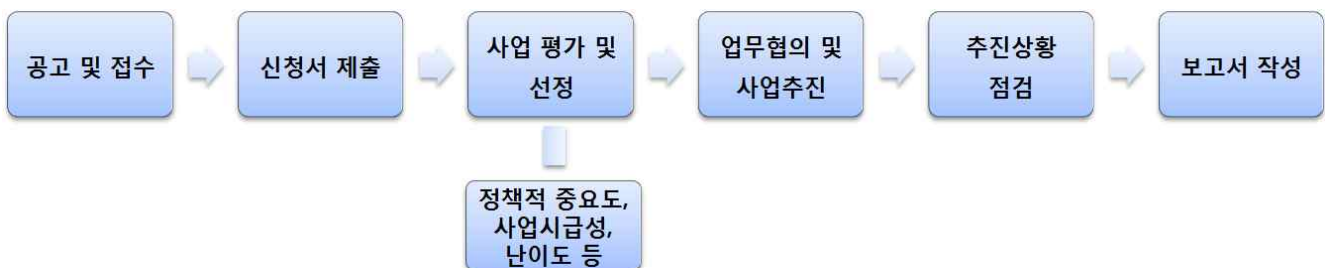
##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 담당자 : 김은우 전문연구원(hisgrace@kmi.re.kr), 손보라 연구원(bora62@kmi.re.kr)

## □ 신청서 평가 및 기타

- 선정기준
  -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시급성 · 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김은우 051-797-4772 / 손보라 051-797-4781)로 문의
-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 사업 추진절차







## <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 신청기간

2015년 4월 17일(금) 09:00 ~ 2015년 7월 31일(금) 18:00

### 2. 신청자격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 3.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내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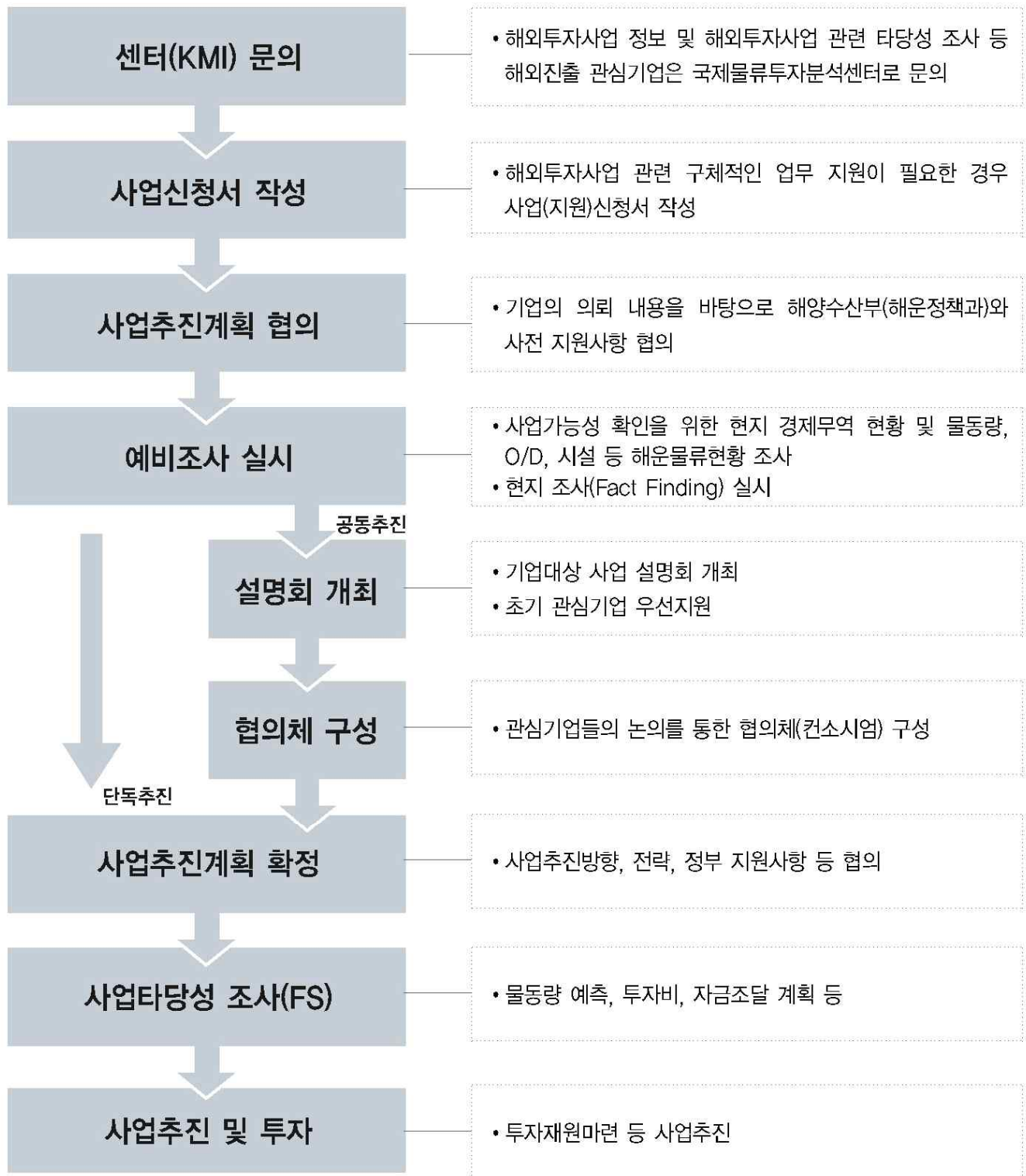
### 4. 문의처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미 연구원(051-797-4778, usea1004@kmi.re.kr)

김주혜 연구원(051-797-4779, joohye915@kmi.re.kr)

##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